

박경리 탄생 100주년 특별 기획


100년의 대지,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약속

경남 하동

전남 구례

전남 완도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생명, 그 따뜻한 연대의 '토지'

신록이 눈부신 5월, 우리는 한 거대한 문학의 산맥 앞에서 뉘힙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땅의 소중함을 노래한 박경리 작가 탄생 100주년이자 그의 기일(5월 5일)이 있는 달입니다.

작가는 생전 "사람이 산다는 것은 결국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일"이라 했습니다. 소설 『토지』 속 평사리 사람들이 가뭄과 수탈의 모진 세월 속에서도 끝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딛고 선 '땅'이 있었고 그 땅 위에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 년이 흐른 지금, 우리 시대의 대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섬과 산골의 마을들은 '고립'과 '잊혀짐'이라는 서늘한 그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대지 위에서도 기어이 꽃은 피어나야 하기에, 『월간 마을기업』 5월호는 100년 전 평사리 민초들의 생명력을 나침반 삼아, 소외된 자리를 온기로 채워가는 여정을 떠납니다.

하동(편안한 집)에서 이웃의 낯은 지붕을 고치며 보금자리를 짓는 땀방울을 만나고, 구례((주)노마드구례)에 들러 다섯 마을 주민이 맞잡아 완성한 공유의 품을 지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청산도(청산도의 미래)에서, 거친 바닷바람과 고립된 섬의 한계를 묵묵히 견뎌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일궈내는 이들을 마주합니다.

신규-재지정고도화로 이어지는 이 세 곳의 마을기업은, 『토지』가 그랬듯, 사람과 땅의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공동체의 내일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존의 토대를 다지다

가장 척박한 곳에 세우는 든든한 연대의 지붕

하동 (주)편안한집



1. (주)편안한집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 직원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전문 자격증과 건설면허가 이를 방증한다. 2. 윤기덕 대표의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단단한 지붕아래 모여 살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일이다.

망치 소리가 이어지는 이유

5월의 햇살이 제법 뜨거워진 오후, 하동의 한 주택가에는 망치 소리와 전동공구 소리가 쉼 없이 울려 퍼집니다. 낡은 창호를 교체하고 벽지를 새로 바르며, 오래된 주택의 단열 상태를 살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낼 새도 없이 현장을 오가는 이들은 하동군 고전면에 자리한 마을기업 (주)편안한집의 윤기덕 대표와 직원들입니다. 편안한집은 하동 최초의 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 기업입니다. 현재 LH 수선유지급여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 곳곳의 보금자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연 매출 15억 원 규모에 전문건설면허까지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사업의 중심에는 여전히 주거복지가 자리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을 보수하며, 겨울 바람이 스며드는 집에 단열재를 보강하는 일까지. 편안한집은 오늘도 집수리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활에서 자립으로, 사람을 키우는 기업

편안한집은 2001년 하동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 자활근로사업에서 출발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작된 사업은 2004년 자활공동체로 독립하며 '편안한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당시만 해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하는 공사에 대한 편견이 적지 않았습니니다.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뒤따랐습니다. 윤기덕 대표는 이를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하고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50개가 넘는 자격증을 취득했고, 편안한집은 실내건축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사업 등 전문건설면허를 확보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을 익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편안한집이 추구하는 가치는 고용이 아닌 자립에 있습니다.



집을 고치며 사람을 잇다

편안한집의 진짜 가치는 건축 기술보다 사람을 향한 시선에 있습니다. 윤기덕 대표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편안한집이 하는 집수리는 단순한 개보수 공사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역시 집을 잃은 주민들과 관련돼 있습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가구를 위해 공동모금회와 지자체를 연결하고 직접 재능기부에 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주민 가운데는 수년 동안 명절마다 사무실을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사무실 공간 일부를 지역 아동을 위한 무료 공부방으로 운영했고, 화재로 운영이 중단된 지역 인력사무소의 복구를 지원하며 일용직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집수리를 넘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편안한집이 오랫동안 지켜온 방식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꿈꾸며

20여 년 동안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를 돌보며 성장해 온 편안한집은 이제 하동을 넘어 경남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경남 지역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이 함께 설립한 광역 사회적기업 '다함'에 참여해 도 단위 주거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윤 대표는 편안한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기반이 된 것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이었다고 말합니다. 더 큰 사업과 더 많은 매출보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키워준 사업을 잊으면 안 된다"는 그의 말에는 마을기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는 직원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꿈도 품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으로 아직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동의 집집마다 스며든 편안한집의 손길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이웃을 연결해 왔습니다. 『토지』의 무대였던 하동에서 편안한집은 오늘도 사람 사는 마을의 가치를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

상생의 품을 넓히다

다섯 마을의 마음이 모여 사람을 품다

구례 노마드구례

섬진강 길목의 사랑방

오후의 카페 랑은 동네 사랑방을 닮았습니다. 창가에 둘러앉은 주민들은 농사 이야기와 안부를 나누고, 단골손님들은 익숙한 얼굴들과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통유리 너머로는 섬진강과 남도대교가 펼쳐집니다. 주말이면 라이딩을 즐기는 자전거 여행객과 트레킹을 마친 방문객들도 이곳에 잠시 머물며 쉬어갑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경남 하동과 마주한 마을입니다. 백운산 자락과 중대천 계곡, 화개장터와 남도대교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오랫동안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쉬어갈 공간은 부족했습니다. 노마드구례(주)는 이러한 아쉬움에서 출발했습니다. 백운산-화천-거석-묘동-중한치 마을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와 중대리 5개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마을기업으로, 카페 랑과 공유식당 소풍, 임산물 판매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던 길목을 머무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다섯 마을이 함께 만든 도전

노마드구례의 출발점은 "우리도 무언가 해보자"는 주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벚꽃철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남도대교와 화개장터 일대를 찾았지만, 정작 지역 농산물과 임산물을 판매하거나 쉬어갈 공간은 부족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농촌에서 관계인구를 늘리고 귀촌인들의 정착을 도울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전환점은 섬진강변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찾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새롭게 조성되는 공간이 공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백운산-화천-거석-묘동-중한치 5개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법인을 설립하여 카페 랑과 공유식당 소풍이 문을 열었습니다.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 공간을 꾸렸지만 운영 경험도 자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생업을 이어가며 카페 운영을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갔습니다. 이강엽 대표는 "당시 목표는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주민들의 꾸준한 노력 끝에 공간은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주민과 방문객을 잇는 마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

사람이 모이면 가능성도 자란다

카페 랑과 식당 소풍은 이제 주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마을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며, 귀촌을 고민하는 이들은 정보를 얻고 여행객들은 잠시 쉬어 갑니다. 이 공간에서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요가 클래스가 열렸고, 이번 주말에는 버스킹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이 새로운 활동으로 이어지며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공동 포장재 개발도 눈에 띕니다. 고사리와 두릅, 버섯 등을 담을 수 있는 디자인을 제작해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성과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마드구례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다섯 마을의 미래를 그리다

노마드구례가 그리고 있는 다음 목표는 농촌관광입니다. 백운산과 중대천 계곡, 남도대교를 찾는 방문객들이 더 오래 머물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숙박과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한편, 능이버섯을 활용한 지역 축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수익을 나누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강엽 대표는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구심점에 마을 공동체가 단단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일은 몇 사람이 더 많이 할 수 있어도 성과는 함께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의 신념입니다. 실제로 노마드구례에는 토박이 주민과 귀촌인이 함께 참여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던 길목을 머물고 싶은 마을로 만드는 것. 카페 랑과 식당 소풍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는 이제 다섯 마을의 내일을 준비하는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섬진강과 백운산이 만나는 길목에서 노마드구례는 오늘도 사람과 사람, 마을과 지역을 잇는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2



3

1. 구례군 간전면 백운산-화천-거석-묘동-중한치 마을 주민들은 카페를 거점으로 공동체 활동과 지역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2. 카페 랑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연결하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3. 이강엽 대표는 마을 공동체가 지역 발전과 자립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립을 넘어 결실을 맺다

가장 척박한 곳에 세우는 튼튼한 연대의 지붕

완도
청산도의 미래

섬이 다시 불렀다

“아들아, 배는 결을 타야 쓴다. 그래야 안 까파진다. 아무리 큰 뉘라도 결을 타는 배는 못 까파뜨리니라. 그러니 결을 타고 올랐다 결을 타고 내려와야 하느니라. 그것이 배의 이치고 세상살이의 이치니라. 알았지야, 아들아. 한년 결대로 살아야 쓴다. 맹심해라이.”
- 소설 『결』 중에서

청산도의 바다는 오래전부터 정택진 대표의 소설 속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개발의 흐름에서 한발 비껴선 섬마을과 가난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역사의 굴곡을 건디는 이웃들의 이야기는 그의 작품 곳곳에 등장합니다. 마을기업 청산도의 미래 정택진 대표는 후미진 곳에 남겨진 사람과 시간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기록해온 소설가입니다.

제1회 이외수문학상과 대산창작기금을 수상했으며, 고향 청산도를 배경으로 한 자전적 소설 『품』과 『곳』, 『이스모스』 등을 집필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섬을 떠난 그는 오랫동안 육지에서 생활했지만 청산도를 잊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품 같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을 쓰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마을기업 청산도의 미래 협동조합입니다.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다

섬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주민들 역시 농사와 어업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아갈 방법보다 마을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자 했습니다. 지역 특산물 유통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을기업 청산도의 미래 협동조합을 설립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초창기부터 묘지 관리와 다양한 수익사업을 모색하는 한편, 청산도의 대표 특산물인 삼치에 주목했습니다. 전복과 김으로 유명한 섬이지만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겨울철 최고 별미로 삼치를 꼽아왔습니다. 특히 11월부터 살이 오르기 시작해 겨울에 절정을 맞는 대형 삼치는 청산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바다의 선물입니다. 정 대표는 이 특별한 먹거리를 섬 밖에도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생산량보다 품질을 우선하며 청산도 삼치만의 가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청산도의 미래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1. 청산도의 미래는 당일 잡은 3kg 이상 삼치만 사용하며, 겨울철 제철 삼치의 풍부한 맛을 선보이고 있다.
2. 청산도의 미래를 이끄는 정택진 대표는 2026년 출간을 목표로 새로운 소설을 집필 중이다.

바다와 바람이 완성한 청산도의 맛

청산도 사람들은 3kg이 넘는 것만 진짜 삼치라고 부릅니다. 그보다 작은 것은 '고시'라고 따로 구분합니다. 육지에서 흔히 접하는 삼치와 달리 겨울철 살이 오른 대형 삼치는 청산도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별미입니다. 청산도의 미래 역시 3kg 이상 삼치만을 고집합니다.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단 비닐주낙 방식으로 한 마리씩 낚아 올려 상처가 적고 선도가 뛰어납니다. 당일 잡은 삼치는 갯물로만 손질하여 5년 묵은 국내산 천일염으로 12시간 간한 뒤 깨끗이 씻어 청산도의 해풍과 햇볕에 자연 건조합니다. 비린내는 바람이 걷어내고 감칠맛은 별이 더합니다. 무엇보다 정택진 대표는 원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철이 이른 삼치도, 하루가 지난 생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질과 간 역시 직접 챙깁니다. 좋은 재료를 정직하게 다루는 일, 그것이 청산도의 미래가 지키는 가치입니다.

섬의 미래를 지키는 사람

청산도의 미래는 지금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삼치가 나지 않는 계절에는 염소를 방목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모색합니다. 정택진 대표의 목표는 특산물 판매를 넘어 주민들이 이곳에서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가 품고 있는 꿈 가운데 하나는 청산도 삼치를 전국에 알리는 일입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즐겨온 겨울 별미를 더 많은 사람의 식탁에 올리고, 그 과정에서 어민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택진 대표는 청산도로 돌아온 지 여러 해가 흐른 지금, 더 이상 이곳이 섬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와 주민들에게 청산도는 바다 끝에 고립된 땅이 아니라 삶과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는 터전입니다. 섬의 경계를 넘어 바다까지가 사람들의 삶의 무대이고, 사람을 품는 한 청산도는 누구보다 넓고 깊은 우주가 됩니다. 소설 속에서 오래도록 그려왔던 고향, 그리고 다시 돌아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섬. 정택진 대표는 오늘도 청산도의 내일을 묵묵히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❶



2

정책 가이드 1

지역의 내일을 살리는 마을기업 3차 도약

하동, 구례, 완도의 흔들림 없는 생명력 뒤에는 행정안전부의 3단계 성장 사다리가 있습니다.



01 신규 도약 Foundation

지역의 결실을 채우는 비즈니스 모델로 연대의 씨앗을 뿌립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동체의 토대를 닦습니다.



02 재지정 도약 Expansion

품질·마케팅 강화 및 광역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줄기로 뻗어갑니다. 마을 경계를 넘어 더 큰 무대로 도약하는 단계입니다.



03 고도화 도약 Fruition

자생적 비즈니스 고도화로 지역사회를 수호하는 든든한 나무가 됩니다.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완성형 마을기업입니다.

04.02

정책 가이드 2

마을기업의 날 공식 지정, 매년 4월 2일

마을기업의 가치와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4월 2일이 법정 '마을기업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마을기업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생명력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Editor's View

왜 하동, 구례, 그리고 완도인가?

이번 5월호 기획 회의의 첫 질문은 “지방 소멸 앞에서 마을기업은 어떤 대담을 내놓아야 하는가?”였습니다.

하동에서 구례를 거쳐 완도로 향하는 여정은 지역의 나열이 아닙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을 나란히 공유하는 구례와 하동의 흙에서 출발해, 남해의 거친 파도를 넘는 완도 청산도로 이어지는 이 길은 대한민국 로컬이 나아가야 할 '산-강-바다'를 잇는 영호남 상생 벨트입니다.

이 세 곳은 대한민국이 처한 소멸 위기 지형(산촌·강변도서지역)을 모두 포괄합니다. 이 루트는 행정안전부가 그리는 '마을기업 3차 도약'의 축소판이자, 척박한 지형 어디서든 연대의 힘이 작동함을 입증하는 거대한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성장 사다리 그리고 국가의 화답

지역을 살리는 3차 도약에 참여와 응원으로 함께해주세요!

마을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으로 갖출 수 있도록 돕는 3차 도약에
응원과 공유, 가치 소비로 동행해주세요.



응원



제1막	(주)편안한집
	주거복지 SNS 지지하기

하동 소외 이웃의 지붕을 고치는
독심 있는 기술 복지 활동을
SNS로 응원해주세요.



참여



제2막	노마드구레
	지리산 공유 공간 방문하기

구레 간전면의
로컬 베이스캠프를 직접 방문하고,
능이축제와 공유주방을 경험해보세요.



소비



제3막	청산도의미래
	반건조 삼치 구매하기

청산의 바다와 공기와 바람과,
그리고 손이 담긴 삼치입니다.

청산도에서 낚은 자연 건조 삼치	1kg 30,000원 (택배비 포함)
----------------------	-------------------------

전화: 010-2356-6483

계좌: 농협 351-1101-9057-43 (청산도의미래협동조합)

※맛이 없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교환이나 환불해 드립니다.

NEXT ISSUE 다음 호 예고

2026년 6월 | 보훈 특별 기획

보훈의 3보(步)

마을기업, 국가의 헌신을 지역의 가치로 보답하다.
기억(記)에서 나눔(分)으로,
다시 계승(繼)을 잇는 세 걸음.